

한국민속예술축제 10월 전주 개최

민속예술 재현 축제 10월 13일부터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려

국내 최대 규모의 민속예술축제가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에서 열린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민속 예술을 재현하는 최대 규모의 축제인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57회 한국민속예술제 조직위원회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올해 한국민속예술축제에는 이북5도를 포함한 전국 20개 시·도 대표가 각 지역을 대표해 경연을 펼치게 된다. 또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에는 14개 시·도 대표가 참가하는 등 참가규모가 관람객을 포함해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 대상 수상 단체에는 대통령상과 함께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경연 외에도 전통공예를 비롯한 체험마당, 전승을 테마로 한 공연 워크숍, 전주 시민들의 참여로 꾸러질 민속관 프리마켓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눈길을 끈다.

특히 축제 참가팀과 전주 시민들이 함께하는 아간시민퍼레이드 '은고을 길고래기'와 소리꾼 장사익의 토크콘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관련 기자회견담회가 24일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운 추진위원장과 진옥섭 예술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트 '소리고백', 영화감독 이준익의 '빌트고백'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민속예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전국에 흩어져 전래되는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국가적인 규모의 민속축제로 지난 1958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1994년 35회 축제부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민속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승·보급을 위해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그간의 축제를 통해 총 400여종이 넘는 민속예술 중

목을 발굴했다. 이들 민속예술 작품 중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그 위상을 인정받은 작품도 상당수에 달한다.

실제, 1·2회 대회의 대통령상은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하회별신굿'과 '봉산탈춤'이 차지했다.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에 앞서 다양한 사전행사가 흥을 돋운다. 그 시작은 전주 시내 문화행사장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길놀이와 판굿 등을 연희해 지역민들에게 축제의 개최를 알리는 '꽃놀이 난장'이다.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국립무형

유산원 열수마루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영고전'은 고대 부여의 궁중 대회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공연으로, 축제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고사'이다. 이 공연은 전통예술 최초로 3D Screen-X로 공연실황이 촬영돼 서울 강남CGV와 전주 고사CGV에서 다시 한 번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는 10월 2일 서울 국립극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신들소리'는 잊혀져가는 호남의 소리를 재발견하는 무대로, 이 시대의 음악인들에 의해 새롭게 꾸며진 '호남가'가 무대에 오른다.

전주시, 추석 중기 육성자금 77억 지원

소상공인 2000만원까지

전주시는 임금 지급과 물품 구매, 긴급결제 자금 등 기업의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결을 돕기 위한 하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 지원분 70억원과 소상공인 지원분 7억원 등 총 77억이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중소기업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은 최고 3억원까지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다. 시는 지원업체에 대해 2년간 대출이자 3.5~5%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은 오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주시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3층)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각종첨부서류는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or.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기업지원사무소(063-281-2945, 235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 전개

전주시는 민족 고유명절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2016년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총 3억7500만원을 모금·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 분청 및 양 구청 생활복지과, 각 동 주민센터에 이웃사랑 나눔 접수창구를 개설한다.

또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 및 이웃 나눔 동참 홍보를 위해 일반 시민들과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이웃사랑 나눔행사의 취지를 적극 알려 사회 전반적으로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분청 및 구청 각 실·과·소·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과 백미, 과일 등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등 명절을 맞아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나눔 행사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이밖에 완산구 해바라기 봉사단과 덕진구사리의 울타리 봉사단에서는 추석 명절 음식을 만들어 장애인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전달하고,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독거노인 및 사회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외로운 이웃 찾아가기' 실천으로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욱 즐거운 추석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문화상품개발사업 추진

한국전통문화전당 공동 청년작가 기획전시 마련

전주시가 (재)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함께 전주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상품개발사업은 전주가 한옥 마을과 음식, 소리 등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전주의 이미지를 담은 특화된 관광상품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오는 10월까지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주관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전주에서 활동하는 청년

창작자 20인을 선정해 전주의 역사에서부터 전주의 전통문화자원 발견, 상품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심도 깊은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6차례의 심층워크숍을 진행한 후 시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시제품 중 약 30점을 최종 선정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전시·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전주브랜드(BI)와 전주의 전통문화자원을 이용한 상품이 외지 관광객들에게 확산될 경우 전주에 대한 친근감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상품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시청로비에서 지역 청

년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연속기획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시청로비에는 '꽃'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유기준 청년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주요 전시작품은 꽃으로 장식된 거울과 보관함, 편지 등으로, 연관 주제인 전주정신 '한국의 꽃심, 전주'를 알리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브랜드 문화상품개발은 전주시 관광산업의 공간적 확산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며 "전주의 색깔이 강한 관광상품이 방문객의 일상에 스며들며, 전주에 대한 호감을 심어주는 매개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청년·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추가 모집

전주시는 오는 11월 21일까지 청년 취업지원사업 및 4060중장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전주시가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수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1년간 매월 50~80만원씩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취업지원사업 모집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주권 소재 기업 중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5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을지연습 주민참여 맞춤형 실제훈련 실시

전주시는 24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전주대와 덕진소방서 등 10개 유관기관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일 폭격에 따른 대응 및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훈련은 2016년 을지연습 중 주민참여 실제훈련으로 적의 미사일이 종합경기장 건물을 타격한 상황을 가정해 민·경·관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사상자 구조 및 주민대피, 화재진압 및 응급복구, 경제근로와 교통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응훈련으로 실시됐다.

훈련 목표는 적의 도발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재난대응 능력향상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

훈련내용은 적의 미사일 폭격에 따라 경기장 건물의 붕괴 및 화재발생

시 △긴급 구조통제단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사상자 구조 및 경기장 인근 주민 대피 실시 △화재진압 및 잔해 제거 △사고수습 및 주민 안정화 조치 등이다.

김영재 기자

경찰서 유리창 쇠망치로 내리친 60대 여성 영장

"경찰서 현관 유리창을 쇠망치로 내리쳐 파손하려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경찰서 유리창을 쇠망치로 내리친 혐의(공용물건손상 미수 등)로 박모(6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25분께 완산경찰서 현관 출입문을 쇠망치로 수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